

전북도, 올해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도내 2500어가에 어가당 60만원 씩 총 15억원 지급 예정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 통해 접수·검증 후 9월 지급

전북도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어촌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에도 어가당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오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라북도 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규모는 2500어가에 15억 원 정도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야 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어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작년 12개 시·군 2,016어가에 12억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원했다. 특히 대부분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

도는 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신청 어가의 주소지, 어업경

영체 등록 여부, 지급 제외사유 등을 검증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9월 초에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혜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공익수당을 지급하므로 도내 어민분들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주시기 바란다"며 "신청 대상 어가가 누락 되지 않도록 시·군, 어촌계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플랫폼 도시 새로운 비전 실현”

전주니까... 조지훈 전 경진원장 출판기념회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의 저서 '전주니까 조지훈 출판기념회'가 지난 12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가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열린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김성주·안호영·김윤덕·진성준·양영숙 국회의원과 송하진 전 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해 참총은우리철 회장님, 전주생물교회 서회령 목사 등 사회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석했다.

특히, 전주KBS 아침마당 전북 MC 홍석우 씨 사회로 진행된 1부 북 콘서트에서 조지훈 전 경진원장의 정치 입문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은 축하사를 통해 "34년간 봐온 조지훈은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이다"며 "특히, 미래지향적이면서 커다란 추진력과 실용적인 감각을 갖춘 일꾼이다. 전주경제 일꾼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지훈 전 경진원장은 "조지훈이



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삶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꾸민 전주에 대한 생각을 엮어낸 책을 소개할 수 있게 돼 기쁘면서도 어제가 무겁다"며 "전주에 대한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자 귀한 걸음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전주가 사람과 자원이 거침없이 교류하는 도시로 재도약하기 위해 플랫폼 도시라는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오늘부터 제20대 대선 선거운동 본격 시작

유권자는 말(言)·전화·인터넷·SNS·문자메시지 이용해 선거운동 가능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공직선거법(이하 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

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가능하다.

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가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고, ▲선거구인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된 사람은 자동차와 확장장치를 이용해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자 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유네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문광고와 방송공고를 할 수 있고, ▲TV와 라디오를 이용한 방송연설, ▲인터넷문서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 등 동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다.

이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한 상시적으로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言)이나 전화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도 있다.

다만,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 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기포스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은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법에 위반될 수 있다.

한편,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2월 14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최대 2억 2천만원 지원

금리 연1%로 총 5억·HACCP 시설·영업장·화장실 개선 식품 제조·가공업·식품접객업·모범·향토음식점 대상

전북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연중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지식소를 운영하는 자다.

지원 분야는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HACCP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 개선에 한한다.

/유호상 기자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대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융자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증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도,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기획단속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완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단속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합동으로 17개반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30일 내 신고

클릭하면, 안심 전북여행이 쏟아진다

'한중 문화교류의 해', 전북 디지털 안심관광 캠페인 실시 '한중 디지털 가이드 북'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활성화 기대

전북도가 지난 12일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과 함께, 국내·외 개별관광객(KOFC)과 함께, 국내·외 개별관광객 대상인 '한중 디지털 안심관광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디지털 산업시대에 맞춰 국내 여행 지속적 상승과 국제관광 시장 재개에 대비해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디지털 가이드북 배포 및 전북 비대면 안심관광지 홍보 등이 이뤄졌다.

디지털 가이드북은 한국과 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공식인증사업(주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여행지에 전북도(전주시)가 선정돼 교통, 숙박, 관광지, 체험 등 총 10편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중 디지털 가이드북 - 전북(전주)여행 가이드북'은 국내 '네이버' 홍보 플랫폼부터 중국의 유명 홍보 플랫폼 '바이두' 등에 소개가 될 예정으로 향후 국내 관광객 뿐만 아니라 중국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가이드 북은 PDF(Interactive PDF) 형식으로 모바일 또는 PC에서



다운받아 온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와이파이 등이 가능한 환경에서 다운로드 해놓으면 현지 여행지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2022년 봄철 전북 비대면 안심관광지 홍보를 통해 시·군의 힐링여행지를 홍보했다.

이번 안심관광지는 야외 관광지와 자연환경이 중심이 돼 가족과 나들이하기 좋은 장소들이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디지털 관광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북 관광산업 재개를 앞당겨 나가고자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전북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내달 31일까지 전자메일·등기우편으로 접수 신청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4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46일간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공모분야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규제와 관련된다.

도민 누구나 횡수 제한없이 제안이 가능하며, 기업·협회·단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해 친환경·신산업

등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민은 전북도 누리집을 통해 제출 서식을 다운 받아 전자메일(1207@kocakr)이나 우편(전북도 법무행정과 또는 시·군 규제개혁 담당부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과제는 해당부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개의 우수과제를 선정하며, 우수과제로 선정된 제안자에게는 오는 9월경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시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어르신·초중고생 시내버스 요금 무료로”

임정엽 전 완주군수

임정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미래경제대책팀장인 47·5기 완주군수가 70세 이상 어르신과 미래세대인 초중고생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 이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임 단장은 14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교통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 대비가 취약한 노인층의 경제적 고통이 코로나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70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생을 합한 15만여 명의 소요 예산 115억원에 대한 대책도 공개했다.

임 단장은 또 시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방안으로 전체 시내버스 40여 대 중 운영을 가피하는 적자노선 100여 대를 지역체제로 흡수하는 적자노선 공영체 실시도 약속하고 이에 따른 연간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설명했다.

임 단장은 이와 함께 자가용이 필요없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린대로와 백제대로, 홍산로 등 세 개 구간에 전주형 시내버스 전용차로인 시내버스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도입하고 이 같은 교통정책을 총괄해 이용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통공사 설립도 약속했다.

/김윤상 기자

“반드시 전주를 위해 맘 흘릴 것”

이중선 전 행정관 출판기념회 개최

전주시청 출마를 준비 중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2일 예세이집 삼추, 이중선입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 전 행정관은 풍남백화점(현 가축화과 건물) 1층에서 개최된 출판기념회에서 "대규모 행사장에서의 출판기념회도 생각했지만 좀 더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으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는 윤건영 국회의원, 안도현 시인 배우 명계남씨가 이 전 행정관의 인연과 에피소드를 대화로 풀어내며 이채로움을 더했다. 또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의원, 양영숙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으며, 이



낙연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다수의 현직 국회의원과 청와대 관련 인사 등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전 행정관은 "많은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오늘 격려와 응원에 화답하듯 움을 더했다. 또 송하진 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김성주 의원, 양영숙 의원 등도 현장을 찾았으며, 이

/김윤상 기자

김민영 민주 정책위원장의, '이심민심' 캠페인 진행



김민영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 의장(전 정읍시립조합장)이 이재명 대선후보 '소확행' 공약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이심민심' 캠페인을 진행한다.

김 부의장이 준비한, 시민의 마음이 이재명의 마음이라는 의미의 '이심민심' 캠페인은 이재명 후보의 생활철학

형 공약인 '소확행' 공약을 시민 속으로 들어가 밀착 홍보하는 방식으로 오는 1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부의장은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은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네티즌에게 가려 좋은 정책이 묻히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웠다"며, "찾아가는 지역별·성별·세대별 맞춤형 홍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소확행 공약을 제대로 알릴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